제3강 동서양의 과학과 미학의 관계

(1교시)

율려는 수학의 체계이다. 영화, 영상도 점과 점들의 집합분산, 즉 수학이다. 디지털 카메라도 똑같다. 수학의 체계가 오늘날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인 영상수학, 상수론과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를 찾아보자.
점은 일종의 예언의 체계다. 중국 송나라의 유명한 역학자 소옹(邵雍)이 대중적으로 유행시킨 주역이 매화역수(梅花易數)로, 대중적인 점보기이다. 수학이 사물의 내부에 숨겨져 있는, 미래에 드러날 내용과 형상을 미리 찍어 올리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에 가라앉아 있는 깊은 무의식과 관련 있는 일종의 신비적 행위로서의 점과 이 신비적 행위와는 전혀 반대되는 수학적 전개,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사물의 물질적 외형을 다루는 수학과 아주 깊디깊은 무의식의 내용이 연관되고 또한 미래의 예언과 연관되는 한 찰나이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안에 그런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신비적인 내용을 깔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예술, 시란 무엇인가. 인생의 허무, 진실, 미묘함, 이 세계와의 관계, 또는 인간과의 관계와 자기 욕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다. 이런 신비적인 감흥이 숫자놀이 끝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대중예술의 첫 시작이 아닐까. 전승은 그대로 하면서 원형을 보존하고 확대시키고 반대로 그 원리와 구조의 의미를 해석해서 현대화시키는 것도 같이 해야 한다. 여기서 예술과 과학 사이의 관계가 생긴다. 이 관계가 잘 확립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컨텐츠웨어의 부자 나라가 되느냐 가난뱅이 나라가 되느냐가 달려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 하드웨어는 이제 인프라로서 거의 다 구축된다. 문제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제대로 작동, 변형시키고 감동력 있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 포인트로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유럽 과학자들은 영어로 'I-Ching'이라고 번역된 역경을 읽는다.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학계에서는 이스트 터닝(east-turning), 즉 동양 쪽으로 돌아가려는 동풍이 불기 시작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잘 모르고 있다.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문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한편에서는 차분하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미래의 문명을 우리가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 문명은 생태계 오염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도덕적 황폐 문제가 해결되고 전 세계의 빈부격차를 일으키는 자유주의 시장이 수정되고 기상이변이 해결된 문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비인격, 생물·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두가 우주적 주체라는 우주공동주체성의 원리를 인정, 인식하고 삶에 반영해야 한다.

물을 존중하지 않고 이대로 오염과 과용을 계속 하면 10년 안에 기근이 온다. 공기 역시 마찬가지다. 매연, 이산화탄소, 오존, 이것들을 인격과 똑같이 존중하는 문화의 대혁신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인격·비인격, 생명·무생명을 막론하고 모두가 우주적 주체성을 가진 공동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철학, 예술, 문화, 사상 등이 초등학교 교육부터 일상적인 상식으로 나와야 된다. 우주의 주체를 생명으로서 모시는 태도, 즉 '모심' 없이는 안 된다.

www.artnstudy.com

예술, 일반적인 예술적 표현, 미학적 인식은 자기조직화와 관련되어야 한다. 자기조직화라는 것은 모든 물질의 내면에 있는 마인드(mind)—인간에게는 영혼, 물질에게는 핵—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의 외피로서의 물질적 외관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자기조직화의 진화론은 찰스 다윈 이후에 새로운 진화론, 새로운 생물학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2002년 붉은 악마 현상과 1999년 시애틀 WTO 반대 시민집회 현상도 자기조직화의 원리나 내부공생(endosymbiosis)이라는 원리 등으로 설명 가능하다.

붉은 악마 = '밀실의 네트워크'
개체와 개체 사이에 분권적 융합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는 뇌 현상에 대한 뇌수학적 연구에서도 그렇고, 영성 또는 생명의 특징을 전부 자기조직화로 설명한다. 이것은 지난 3세기 동안 서양과학과 인류의 사유를 결정해온 환원주의(reductionism)를 무력화한다. 목적이 있고 주체가 있고 과정이 있고 과정에 명령 계통이 있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의 많은 동의가 있고 그것에 다시 동의하고 또다시 동의하고 하면서 차원을 변화시켜 발전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환원주의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붉은 악마 같은 현상을 해석할 수 없다.
지금 붉은 악마들은 자신들이 한 일들을 모른다. 붉은 악마가 붉은 악마 자신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자기들을 설명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한 세대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철학, 문화, 사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서 자신을 닦아야 한다. 그러면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새로운 문명이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기조직화는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는가? 우선 자기조직화 현상은 자기 내면의 신령·영성과, 외면의 생명의 교호 관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내면과 외면 사이의 관계, 개체와 전체 사이의 관계, 개인과 우주적 융합 사이의 관계를 3대 진화 법칙으로 제시한 사람이 테야르 드 샤르댕이다.
샤르댕의 우주 진화의 3대 법칙: 'inward consciousness', 즉 안으로 의식이 있고, 'outward complexity', 밖으로 사물·생명의 복잡화 과정이 있으며, 'union differentiates', 군집·전체는 개별화한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생물학 진화론은 다윈은 물론이고 구조주의, 역학 등의 영향으로 군집·덩어리·종이 먼저 발생한다고 보았다. 전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각자 개별화하면서 자유가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그때의 정설이다.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 또는 제3세계의 여러 가지 포퓰리즘 등이 여기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전체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공동체주의, 즉 전체적인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소유의 운동이 매우 발전했지만 점점 후퇴한다. 예전에는 그 자체로 우연적 기제인 줄 알았던 돌연변이, 다양성, 자유의 원리가 이제는 오히려 필연적 기제가 되면서 사물도 생명도 개체가 먼저 나오고 그 개체 안에 숨겨진 차원으로 전체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숨겨진 전체성을 스스로 자기조직화하려다 보니까 퓨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동학에서는 '각지불이(各知不移)'라고 하여 '각(各)'이 먼저 나온다. 그렇다면 샤르댕보다 붉은 악마, 자기조직화의 생물학이나 진화론에 동학이 더 가깝다.

www.artnstudy.com

(2교시)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Nature)』에 따르면, 현대에 와서 수천만 년 전에 퇴행해서 없어져 버린 곤충의 옆구리에 겨드랑이 날개가 30종류로부터 다시 도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게 재진화이다. 결핍, 요구, 희망에 따라서 진화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곤충의 날개보다도 훨씬 더 고도의 생명과학적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생명, 평화,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지구와 우주질서의 평화,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인간의 희망도 극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지구적, 전 세계적, 전 대기적인 대혼돈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통합적인 과학을 내놓기 위해서는 인문학에서 새로운 비전과 아키타입이 나와서 자극을 시켜줘야 한다. 이때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시민민주주의도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세계와 인간을 넓게 보았던 고대 인간들의 인식구조나 문화로 문예부흥, 르네상스를 해야 한다. 유럽의 르네상스는 중세의 종교적인 추상주의, 신학중심주의, 신중심주의로부터 인간중심주의로 나아가는 길에서 희랍의 전통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신시(神市)는 일종의 호혜시장인데, 자본주의적 교환시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고 생태계적인 문제를 존중하며 지구의 신령하고 거룩한 세계를 인정하는 일종의 제사적인 물물교환 형태이다. 경제인류학에서는 호혜(互惠)라고 부른다. 호혜가 교환시장과 함께 이중적 구조를 만들어가야 지금과 같이 교환시장 일변도로 가지 않고, 전 세계적 세계화에 의한 빈부격차를, 신자유주의를 넘어갈 수 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전원일치, 만장일치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전통은 동아시아의 화백(和白)이다.
문예부흥의 과학적 원리가 재진화이다. 우리 전통철학 가운데에는 무왕불복(無往不復)이라는 원리가 있다. 주역의 원리인데 한번 흘러간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는 이치, 한번 간 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바로 우주의 순환성 때문이다. 확장하면서 순환하는 것이 확충(amplification)이다.
정신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할 때에는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하고,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돌면서 들어가고 돌면서 나온다. 이것을 고리, 환(環)이라고 하는데, 이는 탈춤, 판소리, 풍물, 동학, 우리 사상의 구조이다. 『천부경』의 '일시무시'도 마찬가지다. 시작하는 데로 돌아가는 것은 기승전결이 없다. 확충이 필요한 것은 시간관에서부터 따져야 된다. 탈춤과 굿은 동네 사람들 전체의 정신치유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www.artnstudy.com